



남구 행정복지센터 ‘함께하는 행복밥상’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이 복지관 2층 식당에서 5월 가정의달 맞이 ‘다가치, 다같이 함께하는 행복밥상’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번 행사는 하오 중화요리, 선인장통신, 랭삼1992 무등시장점, 점단돌술잡자탕 무등시장점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와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월산5동자원봉사 캠프가 연계해 배식 봉사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후원 업체들이 정성껏 준비한 짜장밥과 불고기 등의 식사가 제공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은 복지관 이용인과 지역 주민 250여명을 맞이했다.

양수혁 하오 중화요리 대표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사는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에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동구 살레시오여고, 금연·절주 캠페인

광주 동구는 세계 금연의 날(오는 31일)을 앞두고 지난 14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일대에서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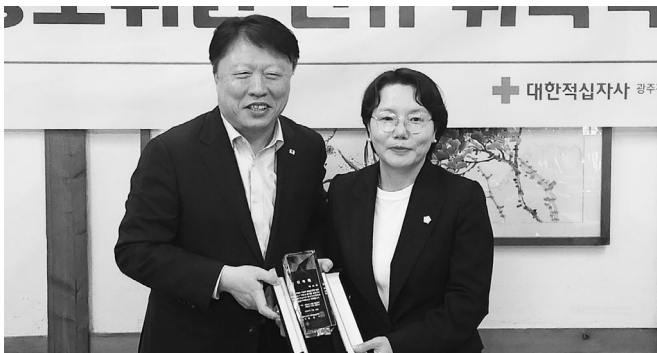
이번 캠페인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경계선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캠페인에는 살레시오여고 학생과 교직원들 비롯해 광주금연지원센터, 금연지도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흡연 및 음주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학교 주변의 담배장초 투기 문제 해소와 환경 개선을 위해 담배장초를 수거하는 ‘줍깅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고, 금연지도원들은 현장에서 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절주와 금연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이지에 광주 동구의원, 헌혈홍보위원 위촉

이지에 광주 동구의원이 15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홍보위원에 신규 위촉됐다.(사진)

이 의원은 지난 3월 ‘다회 헌혈자 우대’ 조례를 발의하는 등 평소 헌혈과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이번 위촉에 따라 이 의원은 앞으로 2년간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헌혈문화 확산 및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의원은 “너무 과분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에는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 등과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지역 내 헌혈 현황 및 향후 홍보 방향 등에 대해 논의됐다.

윤준명 기자



도로공사 광전본부, 5·18민주묘지 정화활동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권역본부는 지난 13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에 대한 참배와 결연묘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행사에는 천병태 권역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6명이 참여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하고 결연을 맺은 묘역의 묘비세척, 잡초제거, 주변 환경정리 등의 정화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묘역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영령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천병태 권역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민주화의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다가가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5·18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기자



전남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활동 눈길

전라남도도는 지난 14일 장애인에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이 보성읍 두슬마을을 찾아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사진)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전남장애인체육회 등 6개 민간기관의 뜻이 모여 2023년 3월 창단됐다. 현재 14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봉사의 주제로 나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두슬마을에서는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여해 △노후방충망 교체 30가구 △LED 전등 교체 30가구 △갈라치 및 미용봉사 △푸드트럭 운영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배성진 전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무안경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

무안경찰은 15일 오전 무안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전남 지역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정성일 경찰서장과 김산 군수를 비롯해 모범운전자회, 무안초등학교 교직원 등이 참여했으며, ‘타면 착! 안전띠 착!’이라는 슬로건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펼쳐졌다.

참여 기관들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잘못된 착용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뒷좌석에 탑승하는 어린이나 고령자의 안전띠 착용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정성일 무안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교통·치안 협력기관과 협업체 현장 중심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광주 남부경찰, “가정의 달, 폭력·학대 막아주세요”

광주 남부경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순찰자를 이용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가정 내 폭력이 범죄라는 점을 부각하고, 이웃 주민의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으로, 순찰차 12대에 ‘가정폭력·아동학대 안돼

요”라는 내용의 담긴 스티커가 부착됐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평화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주민들이 가정폭력·아동학대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대한적십자사 광전지사,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 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월영령을 기리는 참배의 시간을 가진 후 비석 닦기 및 조

화 교체 활동을 전개했다.

하재성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사무처장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숭고한 영령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매년 5·18 민주묘지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GIST-목포가톨릭대, ‘중독 문제’ 지역사회 공동 대응

교육·연구·디지털 플랫폼까지 보건체제 혁신 위한 상생 협력

광주과학기술원(GIST)과목포가톨릭대학교가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보건체제 강화에 손을 맞잡았다.(사진)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 14일 GIST 행정동 소회의실에서 목포가톨릭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독 분야 대응을 위한 교육·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기철 GIST 총장과 윤빈호 목포가톨릭대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인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지역사회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지원 △중독 예방 플랫폼 디지털화 개발 협력 △양 기관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 총 5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GIST 임기철 총장은 “중독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인간다움을 되돌아보게 하는 복합 사회 문제”라며 “과학기술에 종교적·휴머니즘적 접근이 더해진다면, 사람 중심의 보건 대안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목포가톨릭대학교 윤빈호 총장도 “이번 협약은 중독 문제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실질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예방 중심의 디지털 보건 플랫폼은 지역사회 전반의 체계 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최동환 기자